

다 함 교 회

주간 묵상집 · 솔로몬의 성전 건축 (4)

영광이 머무는 자리

열왕기상 8:1-11

한 주간 개인 경건 묵상 · 월요일 ~ 토요일

이번 한 주간, 주일에 선포된 말씀 「영광이 머무는 자리」를 매일 조금씩 마음에 새깁니다. 하루 10분,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짧은 묵상을 읽은 뒤, 한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기도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화려함이 아니라 영광을, 예배당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시는 임재를 사모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 월요일 · 임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본문 사무엘하 6:6-12

사무엘하 6:7, 11 (요약)

7 여호와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같은 언약궤가 웃사에게는 죽음이었고 오벰에돔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궤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대하는 자리와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부적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모셔야 할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궤를 옮기던 날, 온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이 두 기억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복.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가볍게, 혹은 얼마나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묵상 질문

나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대한 적은 없었나요? 임재를 경외함으로 모신다는 것은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기도 |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함부로 대하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경외함과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를 모시게 하소서. 아멘.

◆ 화요일 · 장막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본문 열왕기상 8:1-5; 레위기 23:42-43

레위기 23:43 (요약)

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솔로몬은 하필 초막절, 곧 광야의 장막살이를 기념하는 절기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견고한 성전을 얻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초라한 장막에서 함께하셨던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안정과 성취의 자리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견고함이 커질수록 오히려 은혜를 잊기 쉬운 법입니다.

질문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광야의 은혜'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이름을 붙여 감사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 광야에서도 함께하신 주님, 안정된 자리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첫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 수요일 · 샅꾼의 예배, 자녀의 예배

본문 로마서 8:14-17

로마서 8:15 (요약)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셀 수 없는 제물을 드리고도 그 마음이 두려움과 의무감이라면, 그것은 샅꾼의 예배입니다. 손이 하는 일은 같아도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와 섬김은 '쫓겨날까 봐' 드리는 것입니까, '이미 사랑받았기에' 드리는 것입니까? 자녀는 성과로 사랑을 얻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았기에 사랑으로 섬깁니다.

묵상 질문

요즘 내 섬김과 예배의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두려움과 감사 중 무엇이 더 큰가요?

오늘의 기도 | 아빠 아버지, 샅꾼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자녀의 감사와 자유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 목요일 · 채를 빠지 아니하였으며

본문 열왕기상 8:6-8; 이사야 46:3-4

이사야 46:4 (요약)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안고 구하여 내리라.

궤가 성전에 안치된 뒤에도 이동용 막대기인 '채'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시고,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표지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지고 다녀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오늘 내가 걸어갈 광야로, 주님을 예배당에 두고 떠나지 말고 함께 모시고 나갑시다.

묵상 질문

이번 한 주, 주님의 임재를 가장 모셔 가고 싶은 '나의 광야'(가정 · 일터 · 관계 · 건강)는 어디인가요?

오늘의 기도 | 저를 업고 안고 백발까지 품으시는 주님, 제 삶의 자리마다 함께 걸어가 주소서. 아멘.

◆ 금요일 · 고발장 위에 뿌려진 피

본문 열왕기상 8:9; 로마서 3:23-25

로마서 3:24-25 (요약)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언약궤 안의 두 돌판은 우리의 깨어진 언약을 고발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지 않고 간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입니다.

그 고발장 위에,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나의 죄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으나,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납'이 찍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묵상 질문

여전히 나를 정죄하는 '내 죄의 장부'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납'이 찍혔음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제 죄의 고발장을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 토요일 · 영광이 가득 찼더라

본문 열왕기상 8:10-11; 고린도후서 4:6-7

고린도후서 4:7 (요약)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화려한 성전을 비로소 성전 되게 한 것은 순금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한 인생의 참된 가치도 스펙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제 순금 성전이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주일,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영광이 머무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준비합시다.

묵상 질문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잣대' 하나를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내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 영광의 주님, 질그릇 같은 저를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내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